

- 대전 동산초등학교 홍도동 이전 -

건의 의 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대전 동산초등학교 홍도동 이전 건의서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미래의 지속성장 가능 사업으로 대전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민들은 “**생활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자치를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365일 지역민들의 불편상황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의정,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생활 밀착형 지방자치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제5대 동구의회부터 주민 건의가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홍도동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1964년 개교하여 10,705명의 동량을 배출한 대전 동산초등학교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에서 동구 홍도동으로의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62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약 95%인 589명이 동구 홍도동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 학생이 대덕구 오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 동산초등학교 학부모와 홍도동 지역 주민으로부터 동산초등학교가 대전 동구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구간 경계조정, 초등학교 이전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방안 등 사전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산초등학교는 지난 '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시 우리구에서 대덕구로 편입되면서, 대덕구 오정동은 1개의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개의 초등학교를 보유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반면에 동구 흥도동은 초등학교를 보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 동산초등학교는 동구청의 입장에서는 학교 소재지가 대덕구여서, 대덕구청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대다수가 동구에 거주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또한 정비되지 못해 행정의 사각지역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또한 오정동과 흥도동 주민들의 동의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계 조정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김신호 교육감님.

동구 흥도동은 현재 인구가 13,865명으로 주변의 용전동과 가양동 주민을 합칠 경우 약30%의 인구가 거주하는 동구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몇가지 제안을 통해 동산 초등학교가 동구로 이전시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드리면서 몇가지 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동산 초등학교를 매각한 후 구 동부교육청 자리인 흥도동 66-6번지 일원 또는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동산초등학교의 신설 이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대덕구와 한남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동산초등학교 부지를 한남대 부속고등
학교 부지로 활용하여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제안이 어려울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시 동산초등학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일원을 대전광역시 동구로 편입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대전광역시장 귀하

대전광역시 교육감 귀하